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두산 이송이 문수경 권세안/이옥희 김규찬/최효자 김영상 김영애 김윤주 김한나 김희규 류영철/김청숙 박금업 박순웅/이송애 박희재 배세영 석형기/이희순b 송형기/김현준 오택현 윤병호/양영옥 윤승환/민옥희 이강우 이미자 이영선 이오순 이희환/오희정 장복순 장성자 전순봉 조규래 채희춘/황영옥 최상길/이미향 최정규/김미영 허봉선 황근욱 황상근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두산 문수경 김규찬/최효자 김만형 김지한 김진희 김창구 김창길 박금업 박복순 박부웅 송다해 윤병호/양영옥 윤정호/유옥자 이순철 이송애/박순웅 이영선 이옥남 임영근 장성자 장윤주 전순봉 채희춘/황영옥 허봉선 홍유정 에스더여전도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김병욱/이영숙 김순옥 김연이 김옥자 김재인 김춘화 김현구/서재희 김희규 민옥희 박권재/송명숙 박금업 박복래 박부웅/최귀남 박순자 박영식 백성원/안지영 양영옥 이경자 이기자 이설아 이소은 이송애 이옥남 이정하 정옥순 경해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김민혁 양일석 이노을 정승현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김명숙 김미희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창숙 김춘화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박정숙 박희영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경자 이기자 이설아 이소은 이송애 이옥남 장하람 정옥순 경해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김민혁 양일석 이노을 정승현

♣ 월정현금

주간 성경연구

45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역대하 11장 13절 ~23절		
월요일	역대하 12장 1절 ~ 16절	목요일	역대하 14장 1절 ~ 15절
화요일	역대하 13장 1절 ~ 12절	금요일	역대하 15장 1절 ~ 7절
수요일	역대하 13장 13절 ~ 22절	토요일	역대하 15장 8절 ~ 19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준 강영성 김병욱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혁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전도사	이필레	
	주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송이 문수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한나 시온 · 애 멘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오영주 강민주 김미희 공희라 정희연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선교사	슬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채종범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이집트 : 김진숙
		수리남 : 안석열 이성욱	A X 국 : 김해월
		미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국 : 최옥희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태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홍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8. 11. 04. 주일 예배 설교	동정 받지 못하는 열망	
나눔 3장 12-19절		설교자 이진우 목사

어떤 사람이 죽거나 망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사이가 좋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그럴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악한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열망당하는 앗수르 역시 어디서도 동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 무화와 열매처럼 떨어지는 요새와 성
 -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앗수르의 성들이 사실은 무화와 열매 같았습니다. 나무를 조금만 흔들어도 후드득 떨어지는 것이 무화와 열매입니다. 나무 아래서 그저 입만 벌리고 나무를 흔들면 입속으로 열매가 떨어집니다. 바벨론 군대는 벌 수 없이, 너무나 쉽게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앗수르의 요새들과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요새를 세우고 성을 쌓을 때에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사람들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건축하는 이유는 이렇듯 적군 도발이나 유사시에 그 요새와 성이 백성들을 지켜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앗수르의 성과 요새들은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을 결코 지켜 주지 못했습니다. 앗수르 사람들은 성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만과 교만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로만 피하시는 지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 메뚜기처럼 날아가는 사람들
 - 맥없이 요새와 성들이 무너지듯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은 시간과 물질과 사람의 수고가 있으면 또 다시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질로, 시간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무너져 내린 앗수르 사람들의 마음을 세우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앗수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도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앗수르 백성들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빈사자 굴 같이 되어짐을 통하여 그 자존심은 낮아지고, 그들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정신을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자 같은 장정들은 여인처럼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앗수르와 니느웨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메뚜기와 느치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본문 13~17절을 보면,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영의 성문들은 네 현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받아 벽들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 같이 스스로 망케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망케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망케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퍼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2014년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하며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계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이 있습니다. 흥 아무개씨인데 당시 한국과 미국에서 이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격정과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기록상 그 해 12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갔다는 통계가 남아 있습니다. 여행을 간 것인지 미혹되어 도망을 간 것인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나라는 바로 서기 어렵고 힘들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앗수르에는 위기가 임하자 온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 동정 받지 못하는 열망
 - 앗수르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처참하고 허망하게 무너지지만 누구 하나 그 열망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앗수르에 패전 소식을 들은 사람마다 손뼉을 치며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앗수르의 잔인성과 흑독한 압제가 피정복국에서 너무도 큰 고통을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생령 얻기를 원하십니다. 앗수르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다 놓쳐서 열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앗수르는 어느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앗수르의 멸망에 환호하며 박수를 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전혀 애도하지 않고 오히려 손뼉을 친다면, 그것은 자립자독입니다. 우리는 앗수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안 될 것입니다.

앗수르가 멸망할 때, 사람들은 손뼉을 쳤습니다. 앗수르의 멸망을 동정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앗수르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으면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4 - 45

2018. 11. 11.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입문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사회: 윤 조 훈 장 로
[2부] 오전 9시 30분(로렘나무)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묵 도 ————— 할렐루아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 찬송가 270(통214)장 ————— 다 갈 이 (Praise)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통 성 기 도 —————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 [1부] 최 상 결 집 사 (Prayer) [3부] 윤 조 훈 장 로	
--	--

성 경 봉 독 [1.3부] 이사야 41장 1~13절 [구약p.1015]	곽 정 순 권 사
[2부] 요나 3장 1~10절 [구약p.1288]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 [3부] 얼마나 아프셨나 [전선매]
설 교 [1.3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진 우 목 사 (Sermon) [2부] 억지 충성일지라도

헌 금 봉 헌 ———— [1.2.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 다 갈 이 (Offering)	
---	--

봉 헌 기 도 —————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	--

교 회 소 식 —————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	--

성찬식

찬 양 ————— 찬송가 456(통509)장 ————— 다 갈 이 (Praise)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	--

축 도 —————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	--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임 만 순 장 로
묵 도 ————— 할렐루아찬양대	
성 시 ————— 시편 45편 17절 ————— 사 회 자	
간 구 ————— 사 회 자	
찬 양 ————— 찬송가 31(통46)장 ————— 다 갈 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기 도 ————— 김 경 엽 집 사	

성 경 봉 독 —— 시편 48편 1~14절 [구약p.835] —— 사 회 자	
--	--

찬 양 ————— 할렐루아찬양대	
--	--

설 교 ——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 이 진 우 목 사	
--	--

광 고 ————— 담 임 목 사	
--	--

찬 양 ————— 찬송가 40(통43)장 ————— 다 갈 이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	--

축 도 ————— 이 진 우 목 사	
--	--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 시 온 찬 양 대	
기 도 ————— [다음주:이오순권사] ————— 박 희 영 권 사	

성 경 봉 독 —— 요한복음 1장 43~51절 (신약p.144) —— 인 도 자	
--	--

설 교 ————— 관계 전도를 해 보아요 ————— 이 진 우 목 사	
--	--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분당	영아유치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렘나무	유초등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분당	중고등부	주 일 오전 9:30 로렘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분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분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분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분당	전도특공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분당		

교회소식

◎ 광고

- [2018년도 하반기 성찬식]
오늘(11일) 1, 2, 3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배병·배잔 위원: ■ 1부: 윤조훈, 임만순 장로 ■ 2부: 최성현 장로 ■ 3부: 시무장로 전원
- [추수감사주일 및 에벤에셀 기도회]
다음 주일(18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준비된 봉투로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12일)부터 금요일(16일)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시편136:1)는 주제로 “에벤에셀 기도회”가 본당에서 새벽 5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추수감사주일 성단]
다음 주(18일) 추수감사주일에는 강단을 꾸미는 것을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려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토요일까지 과일 및 채소 등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능기도회]
수능일인 목요일(15일)은 시험 시간에 맞추어 8시 30분부터 제1교육관에서 수능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목장원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유초등부 야외예배 작품 전시회]
지난 10월 6일에 있었던 유초등부 야외예배 시 자녀들이 만든 도자기를 전시합니다. 주일학교가 계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금요기도회]
이번 주(11/16) 금요기도회는 “에벤에셀기도회”로 합니다.
- [2018년 하반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반기 40일 릴레이 금식기도가 다음 주일(18일)까지 “금식일을 정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요엘1:14)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순서를 꼭 지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속지참조)
- [주일학교 및 행정, 남·녀전도회 회계감사]
주일학교 및 행정, 남·녀전도회 회계감사가 오늘(11일)부터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실 분들은 2시까지 장로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남전도회]
2019년도에는 요한남전도회를 요한남전도회와 디모데남전도회로 나누게 됩니다. 디모데 남전도회는 1978년 이후 출생자 중 기혼자를 회원으로 합니다.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여전도회월례회(3부예배후/본당)	*남전도회월례회(3부예배후/본당) *교육위원회월례회(찬양예배후/목양실)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종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김준구 성도	김우근 집사	이한웅 집사, 김순옥 권사/ 김재인 집사, 이강우 권사	이영숙 권사	총성1 소사 총성2 특별	드보라 여전도회
다음주	박종삼 집사	김윤하 학생	조옥자 권사/ 임형문 집사 박금옥 권사	박희영 권사	민음1 신도교인봉사팀 민음2 등촌	에스더 여전도회

11월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44주(4일)	김경엽 집사	윤영준 장로	성미영 권사	최성현 장로	유승용 집사	이경자 권사	
45주(11일)	최상걸 집사	윤조훈 장로	곽정순 권사	임만순 장로	김경엽 집사	박희영 권사	
46주(18일)	유현호 집사	김병을 장로	박복순 권사	윤영준 장로	최상걸 집사	이오순 권사	
47주(25일)	박종삼 집사	강영성 장로	윤 숙 권사	윤병호 장로	강영성 장로	백경자 권사	
예배안내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